제9강 기형도의 「빈집」

(1, 2교시)

빈집

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

잘 있거라, 짧았던 밤들아
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
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, 잘 있거라
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
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
잘 있거라,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

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
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

1. 기형도에 대하여

1960년 경기도 옹진군 연평도에서 태어나 다섯 살 때 경기도 시흥군 소하리로 이주. 1975년, 신림중 2학년 때 누이가 불의의 사고로 죽음. 1979년 연세대 정외과 입학, 연세문학회에서 습작. 성석제, 원재길 등과 만남. 3학년 때 정현종 선생에게 사사. 1984년 중아일보 입사. 19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. 1989년 3월 사망.

2. 문학(글쓰기)

① “자신의 아픔을 의식화하여 삶의 어떤 의미를 끌어내는 방법”
② “아픔을 객관화하여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부딪힌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는 어떤 치유의 회로”(박영근, 『오늘, 나는 시의 숲길을 걷는다』, 실천문학사, 2004, p.193)

3. 「빈집」 2연의 시적 구성

① 시적 관용구 ‘잘 있거라’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잘 있거라, ----------

----------, 잘 있거라

잘 있거라, ----------

② 부정과 의식의 흐름 : (짧았던) 밤 → (겨울) 안개 → (모르던) 촛불 → (공포, 흰) 종이 → (망설임) 눈물 → (내 것이 아닌) 열망

* cf. “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.”(「안개」에서)

4. 유서로서의 시

① ‘잘 있거라’의 내연적 의미 : 유작이 되어 버린 작품
② ‘장님’과 ‘문을 잠그네’와 ‘빈집’

* cf. “나 그 술집 잊으려네/이 세상에 같은 집은 없네/그토록 좁은 곳에서 나 내 사랑 잃었네”(「그 집 앞」에서)

5. 참고문헌

기형도,『기형도전집』, 문학과지성사, 1999
문관규,「기형도 시 연구」, 서울시립대 석사논문, 1997
이영주,「직유를 보는 새로운 시각:기형도 시의 직유 연구」, 연세대 석사논문, 2004
정효구,「기형도론」,『현대시학』, 1992.2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